

한 잔의 밀크커피와 유행가

이미나의 《그 남자 그 여자 2》

글 | 김은경



《그 남자 그 여자 2》
이미나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230쪽 | 값 9,500원

You know I love you I always will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당신도 알고,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My mind's made up by the way that I feel

내 마음은 내가 느끼는 방식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우리 사랑에) 시작은 물론 끝도 없을걸요

Cause on my love you can depend

당신은 나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 〈Love Is All Around〉 가사 중에서

스무 살 무렵 한때 세상을 그렇게 나누어 바라보기도 했던 것 같다. 세계엔 두 종류의 인간 군상이 있다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물론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에도 여러 부류가 있으리라. 언젠가 사랑을 해본 적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혹은 사랑이란 자체를 아예 해본 적 없거나 사랑을 믿지 않고 심지어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 등등.

사랑하는 남녀의 세밀한 심리를 묘사한 책 《그 남자 그 여자 2》는 매일 밤 10~12시에 방송되는 MBC 라디오 〈이소라의 음악도시〉에서 방송되는 인기 코너의 방송 원고를 추려 펴낸 것으로, '사랑' 또는 '연애' 라는 단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간의 청춘 남녀들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다. 책 속

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작가도 말한 바 있지만 전혀 특별하다거나 신선하다고는 할 수 없는, 어쩌면 '나'나 '당신'에게서 흔히 한 번쯤 일어났을 법한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센세이션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

《그 남자 그 여자 2》는 대박 난 영화의 속편들이 대개 그렇듯이, 아무래도 기십만 부 팔려나갔다는 《그 남자 그 여자 1》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듯 사랑의 순간부터 이별, 재회 등에 이르기까지 일곱 가지 사랑의 테마가 일곱 개의 외국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나열된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의 도시는 이 책에 (적당히) 이국적인 색채를 덧입혀 놓으려 한 안이한 의도로서 느껴질 뿐 그 도시들의 의미망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의도'는 최근의 방송사들이 드라마 도입 부분에 유명한 해외 지역에서의 촬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적당히 흥미를 주입시키고, 정작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내에서 촬영하는 스토리 라인으로 극을 전개하는 일련의 행태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1편에서 7편 사이 등장하는 남녀의 얘기들은 어느 도시에 끼워 넣어도 무방한 것이다.

그 남자 : (중략) 나 혼자 사랑했던 것 같아. 내가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걸,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 것 같다.

그 여자 : (중략) 그때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너한테도 사랑이었을 텐데, 니 사랑을 몰라 주었던 거, 나밖에 몰랐던 거, 그래서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너무 늦었지만, 미안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독자들은 그 속에서 일종의 공감대(또는 동류의식)를 느끼거나, 나아가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기도 할 것이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남성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성들은 금성에서 왔다는 은유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 대해 접근했다면 《그 남자 그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멘트가 나뉘어져 있지만 '남자'에 여자를 대입해도, '여자'에 남자를 대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고백들로 채워진다. 이를테면 유행가 가사에서 짝사랑에 아파하는 인물이 자신과 동일화되었다가, 어떨 때는 한 남자를 매정하게 뺨 차버리는 또 다른 노래 속의 한 여자가 자신과 동일화되기도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 빛깔과 소리로 다가온다. 어떨 때 그것은 폴꽃처럼 피었다 지고, 어느 날인가는 동백이나 목련처럼 처절하게 운명을 마감하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막 피어오르는 꽃 한 송이에 마음 설레고, 지는 꽃무더기에 가슴 한쪽이 베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찔함을 당신도 나도, 몇 번쯤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유행가 가사들을 읊조리며 때론 상념에 젖고, 때론 기억 너머 저편의 사람들을 불러모아 혼자만의 추억에 잠겨 보기도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유행가의 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이다. 철이 지나면 곧 잊혀지고, 또 다른 유행가로 바통을 넘길 뿐이다. 사랑은 때로 유행가 가사처럼 단순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복잡미묘한 특성을 가졌다. 추억의 파편을 유행가 가사 몇 줄에 담아 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할 때의 절망과 분노, 슬픔과 후회, 온갖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애증'의 날들을 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당신이 내게 준 그 많은 웃음의 날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들에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걸어 다니던 날들도.

입가에 묻은 밥풀 하나가 까무러치게 귀엽던 날들도.

눈만 마주치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하던 날들도...

《그 남자 그 여자》를 넘기고 있으면 여지없이 유행가 가사들이 떠오른다(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다). 한 잔의 밀크커피처럼 달콤쌉싸름한 유행가. 귀를 간질이며, 잠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듯도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유행가. 우리의 사랑이 한 잔의 밀크커피와 대체 될 수 없는 이치처럼, 《그 남자 그 여자》 역시 유행가 한 소절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을 첨언한다면, 이 책 속의 연인들은 왜 모두 '남자 : 여자'로 규정되어 있을까. '여자 : 여자'일 수도 '남자 : 남자'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문호**

● 이 글을 쓴 김은경은 2000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발표작품으로 〈안개 낀 강〉 〈담배 피는 여자〉 〈메주 쬐는 날〉 〈그때 우리 사랑에 확성기가 있었다면〉이 있다. 현재 시민단체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다.

